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27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주 강세에 S&P500·나스닥 '사상 최고'

- 미국증시 혼조: 다우 -0.23%, 나스닥 +1.19%
- 마이크론의 폭등..반도체주가 이끈 S&P·나스닥 '최고가'
- 미국-이란 종전 협상 관련 양방향 불확실성 여전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나스닥·S&P500↑

5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 마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상황들에도 국지적인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다만 A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53% 상승, 사상 최고가를 경신. 이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3% 하락한 50.461.68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1.19% 상승한 26,545.18에 거래를 마감함. S&P500 지수는 0.61% 상승, 7,500선을 회복하며 7,519.12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 2천은 1.79% 상승한 2,920.54에 마감해 역시 최고가를 경신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2.536% 상승한 17.01에 마감.

(다우 -0.23%, 나스닥 +1.19%, S&P500 +0.61%, 러셀2000 +1.79%)

반도체주 급등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기저에 깔려있음에도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건 반도체주의 급등에서 기인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무려 5% 급등한 가운데 그 중심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이 있었음.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UBS의 목표주가 대폭 상향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세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함. 급 팽창하고 있는 AI 산업 생태계 내에서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갖는 사이클마저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 UBS의 주장. 마이크론은 이 날 급등으로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정규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해 주가 900달러선을 넘어서는 모습.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건 마이크론이 12번째.

다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한 켠 남아있는 가운데 그 충격파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은 소매판매 업종을 중심으로 전통 산업주 약세 요인이 됨. 이에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함.

미국-이란 협상, 변동성 확대 요인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 사안은 여전히 엇갈린 신호를 시장에 던지고 있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을 공격하며 이를 '자위적인 공격'이라고 칭함. 다만 휴전은 계속된다고 확인. 하지만 이란은 외무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휴전 위반'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란은 어떠한 침략도 절대 무대응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사령관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적과의 협상은 순전한 손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한편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 현재 양측은 종전 양해각서에 삽입될 조항 중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다만 이란 대통령실은 전쟁과 지역 긴장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틀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현지시각 27일 각료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와 협상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정황들도 분명 포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은 시장 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상존.

소비자신뢰지수 둔화

지난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이어 이날은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5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공개됨. 소비자 신뢰지수는 5월 93.1을 기록해 전달 93.8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짐. 이는 전문가 예상치 92와 비교해서는 적은 낙폭이었지만 전달보다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점은 확인됨. 구체적으로는 현재 사업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가 121.2로 전달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해 지수 하락을 주도. 콘퍼런스보드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중되면서 5월 들어 소비자 신뢰가 소폭 하락했으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현재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다소 악화됐다"고 설명.

특징종목

반도체: 오늘은 마이크론이 주인공

이날 시장 상승의 주역은 단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9.29%). 마이크론의 급등은 UBS의 목표주가 상향에서 촉발됨. UBS는 AI 메모리 시장이 기존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 특히 AI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등장이 가격 변동과 수요 급변에 취약한 메모리 업계의 기존 사이클 역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 즉 메모리 시장에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장기 계약은 다년간, 고정된 물량에 대한 약속과 부분적으로 고정된 가격에 대한 약속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과거 변동성을 야기했던 물량 기반 계약과 완전 다르다는 것. UBS는 마이크론이 구조적 AI 인프라 수혜 기업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세 배 가량 상향함. 이날의 급등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가총

액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함.

한편 전력 반도체를 포함한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도 지속됨. 온 세미컨덕터(+9.29%), NXP 세미컨덕터스(+5.12%), 울프스피드(+5.17%),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4.60%), 텍사스 인스트루먼트(+5.07%), 애널로그 디바이시스(+5.76%),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4.94%),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5.73%) 등.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력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대표 전력 반도체 기업 온 세미컨덕터에 대한 월가 눈높이도 지속 상향. 미즈호가 이달 70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했던 목표가를 130달러로 재상향했고, 에버코어 ISI 역시 80달러에서 121달러로, 서스퀘하나도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목표가를 높임.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5달러였던 목표주가를 138달러로 상향. 다만 이날 상승으로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는 127달러까지 상승해 목표가 상향이 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

이외 KLA(+6.51%), 램 리서치(+5.6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5.26%), 테라다인(+8.56%) 등의 장비 업종 내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했으며 샌디스크(+7.50%), 웨스턴 디지털(+8.3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4.06%) 등의 스토리지 기업들도 동반 상승.

퀄컴(+4.48%)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AI 데이터센터용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던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고 AMD(+7.78%), 인텔(+3.07%) 등도 동반 상승했지만 엔비디아(-0.22%)는 소폭 약세로 전주 실적 발표 이후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

반도체주 랠리가 종목을 순환하며 진행되는 가운데 대표적 반도체 ETF들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 VanEck 반도체ETF(SMH)(+4.48%)가 2분기 60%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iShares 반도체ETF(SOXX)(+6.1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Rounhill 메모리 ETF(DRAM)(+14.56%) 역시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

전력 인프라도 AI 붐

AI붐은 결국 막대한 전력 수요로 이어져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는 내러티브는 GE베르노바(+3.20%), 이턴 코퍼레이션(+3.14%), 에머슨 일렉트릭(+2.62%), 콴타 서비시스(+2.59%),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6.90%), 컨스털레이션 에너지(+2.55%), 비스트라 에너지(+5.30%) 등 전력 장비, 송배전, 전력 생산 업체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짐. 오클로(+4.52%)는 미 에너지부가 냉전 시대 플루토늄을 원자로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함.

우주항공 관련주 강세 지속

내달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기대감 속에 우주 항공 관련주 강세도 이어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는 미국 우주군이 로켓 랩(+5.48%)에 9천만 달러 규모의 지리공간 위성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인튜이티브 머신스(-8.89%)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재확인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사흘간의 급등을 뒤로 하고 이날 장 중 낙폭을 확대. AST 스페이스모바일(+13.07%), 플래닛 랩스(+8.95%),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1.88%),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18.81%) 등은 급등세를 유지.

이외 특징주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 오토존(-9.29%)은 해외 사업 부진 우려를 반영해 약세. 실제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회사 CEO는 견조한 미국 내 판매에도 해외 판매가 부진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이날 낙폭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대.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사이버 보안주 지스케일러(+1.22%)가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락. 전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현재 진행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이 주가를 끌어내림. 회사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보안 제품에 대한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혀. 크라우드스트라이크(+1.22%), 팔로 앨토 네트웍스(-1.47%) 등 경쟁사 주가도 시간외 거래에서 동반 하락.

일라이 릴리(-0.02%)는 감염병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큐레보, 림마테크 바이오로직스, 백신 컴퍼니 등 3개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장 중 강세였으나 오름폭 반납하고 약보합 마감.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단기물 하락 전환

미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상승했던 단기물을 포함, 전 기간물에서 하락세를 보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낙관론과 무력 충돌 재개에 대한 경계감이 동시에 작용한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좀 더 힘을 받았음. 최근의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움직임도 이날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침.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장기물 금리 하락은 제한적. 이날 오후 재무부가 실시한 2년물 국채 입찰은 지난달 입찰에 비해 발행 수익률이 높아졌지만 응찰률이 이전 6개월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발행수익률은 발행 전 거래 수익률과 같아 양호한 결과를 보임.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6bp 하락한 4.047%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6.9bp 하락한 4.490%를 기록, 4.5%대를 하회.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중 5%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유가 상승에 낙폭을 줄여 4.2bp 하락한 5.024%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7%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39%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1%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로 집계됨.

달러가치 하락..낙폭은 제한

미국 달러화 가치는 최근의 강세 흐름을 뒤로 하고 하락. 주말동안 높아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가능성을 반영해 약세 압력을 받았음.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들에도 이와 상반되는 형태의 무력 충돌이 중동 곳곳에서 발생하자 국제유가의 반등과 맞물려 달러 낙폭도 제한됨.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143으로 0.147% 하락. 엔화 약세는 심화돼 달러-엔 환율은 159.320엔으로 0.10% 상승. 유럽중앙은행(ECB)의 이사벨 슈나벨 집행 이사가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유로-달러 환율은 0.21% 상승. 유로 강세.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04.30원 대비 2.90원 상승한 1,507.20원에 마감. 현지시각 26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1,504.30원 대비 3.35원 상승한 1,506.30원을 기록.

국제유가 반등..금값은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한 엇갈린 메시지들을 불확실성으로 반영해 반등. 미군은 이날 오전 이란 남부에 자위 목적의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를 휴전 협정 위반 행동으로 규정하고 보복하겠다고 밝혀.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란의 준관영 통신인 타스님 통신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도했으며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25척이라는 소식도 있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함. 즉, 한 편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나 또 한 편에서의 종전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장은 양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모습.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22일 종가 대비 2.81% 하락한 배럴당 93.89달러에 마감. 전날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단축 거래를 진행, 장 중 크게 하락했지만 종가를 산출하지 않았음. 이를 감안하면 전일 대비 큰 폭 반등한 것. 전일 7% 이상 급락했던 브렌트유는 3.58% 상승한 배럴당 99.58달러에 마감. 장 중 4% 이상 상승해 다시 100달러선을 웃돌기도. 이날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3.2% 상승함.

국제 금 가격은 장 중 국제유가가 반등한 영향에 하락. 시카고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7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72% 하락 마감. 이틀 연속 약세 마감. UBS는 최근 매크로 상황이 금 가격에 있어 보다 도전적으로 변화했다며 6월말 금 가격 목표치를 기존 온스당 6,200달러에서 5,200달러로 하향함.

이날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보합세에 머물렀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